

# 지역 기업 규모별 '임금 양극화' 심화

### 광주 300인 사업장 월 345만원, 5-9인 223만원 5인 이상 상용직 급여 273만원...전국 88% 수준

광주·전남지역에서 기업 규모별 '임금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5인 이상 전 규모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월급여액은 27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급여 312만원의 약 88% 수준에 머물고 있는 수치다. 상용근로자의 평균 주 근로시간은 3

9.6시간으로 전국 평균 39.9시간에 비해 0.3시간 적었다. 고임금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사업 분야는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으로, 이 분야의 상용근로자 월 급여액은 436만원으로 집계됐다. '제조업'이 302만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64만원, '도매 및 소매업' 247만원 등 순으로 이어졌다. 가장 낮은 급여를 받는 상용근로자

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174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일하는 시간은 많고, 임금은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규모(5-9인) 사업장의 상용 월급여액은 223만원, 상용 근로일수는 20.9일, 주 근로시간은 39.2시간이다. 5규모(300인 이상) 사업장의 월 급여액은 345만원으로 상용 근로일수는 19.9일, 주 근로시간은 37.4시간으로 집계됐다. 산술적으로 비교해보면 1규모 사업장의 근로자가 5규모 사업장 근로자보다 월 급여를 122만원 적게 받는 데다

한주 마다 1.8시간의 노동을 더 하고 있는 셈이다. 또 3규모(30-99인) 사업장의 경우 상용 월급여액이 269만원으로 5규모 사업장보다 76만원 적었고, 상용 근로일수와 주 근로시간은 각각 0.8일, 3.7시간 많았다. 전남지역 5인 이상 전 규모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월급여액도 299만원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13만원 적었다. 상용 근로자의 평균 주 근로시간은 40.9시간으로 전국 평균보다 1시간 가량 많았다. 분야별로는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이 494만원으로 월 급여액이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및 임대업'이 189만원으로 가장 낮은 급여를 받았다. 기업규모별로 1규모 사업장의 급여액은 241만원으로 5규모 사업장 급여액보다 170만원 더 적었다. 상용 근로일수는 0.8일 많은 반면 주 근로시간은 1.4시간 적게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남통계청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라 임금격차와 근무시간의 차이가 발생한다"며 "1규모 사업장에 비해 5규모 사업장은 근로자들도 많고, 일감도 많다보니 정상적인 근로시간 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환준기자 choihj@kjdaily.com



### 현대차 '블루 드라이브 쉐닉지' 운영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시승 고객을 대상으로 '전비(전기차의 에너지 효율)왕'을 가리는 '블루 드라이브 쉐닉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현대차의 브랜드 체험관인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과 현대 모터스튜디오 하남에서 진행된다. 모터스튜디오 방문 고객이 전기차(코나 EV 또는 아이오닉 EV)를 타고 정해진 시승 코스를 우수한 전비로 주행할 경우 상품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현대차는 시승차량의 계기판에 기록된 '평균 전비'를 기준으로 매달 각 거점과 차종별 최고 전비 기록자 3명을 선정해 총 12명에게 보스턴백, 폴바셋 콜라보(협업) 텀블러, 포니 키링 등 상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만 21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각 모터스튜디오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하거나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관범기자 coolguy@kjdaily.com



코스피 소폭 하락 코스피가 4.19포인트 하락하며 2,338.88로 장을 마감한 1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 중소제조업체 50% "올 4분기 투자 안한다"

### 내수부진·인건비 부담 가중에 투자심리 위축

국내 중소기업체 2곳 중 1곳은 올 4분기 투자심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 침체 등으로 인해 경영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4-20일까지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제조업 투자 현황 파악 및 정책의견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응답 기업 50.0%가 올 4분기 투자심리에 대해 '없음'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매출액, 종

업원 수)일수록 '없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미정'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34.3%로 단기적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여향이 있는 중소기업체는 15.7%에 불과했다. 이 업체들은 그 이유로 '투자여력 없음'(42.0%)을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수요부진 지속 예상'(25.3%), '대의 여건의 불확실성'(14.7%) 등을 꼽았다. 주위 동종업계 중소기업체들의 4분기 투자수준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축소'될 것이란 응답이 절반(49.7%)

가량을 차지했다.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46.7%, '전년 동기 대비 확대'는 3.0%에 불과했다. 한편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할 경제정책 방향으로 '내수활성화'(63.0%)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고용안정·인력난 해소'(32.7%), '자금조달 경로 다각화'(32.7%), '수출활성화'(26.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올 4분기 투자 의향이 미정인 중소기업체가 1/3에 달하는 만큼, 투자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전방위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choihj@kjdaily.com

## '딤채' 800만대 판매 기념 이벤트

### 대우위니아, 22일까지 구매고객 쿠폰·상품권 증정

대우위니아는 김치냉장고 '딤채'의 800만대 판매를 기념해 고객까지 대우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우위니아가 김치냉장고 '딤채'에 꾸준한 사랑을 보여준 고객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딤채는 1995년 최초 출시 이후 올해까지 총 800만대가 판매되며 필수 가전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고객까지 대우하는 행사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며 행사기간 동안 딤채를 구매하고 가정 내 설치를 완료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 대상 제품은 2019년형 딤채의 스탠드형과 푸경형 제품 중 30개 모델이다. '위니아-대우전자 스테이' 전문점과 하이마트·전자랜드 등 양판점 및 백화

점, 할인점 등 전국 행사 참여 매장에서 진행된다. 단, 전자랜드는 상품권 대신 행사모델별 캐시백이 제공된다. 먼저 행사 모델에 해당하는 딤채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최대 20만원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 상품권으로 '위니아-대우전자 스테이' 전문점을 비롯한 양판점 및 할인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구입 고객에게는 대우그림 계열사인 딤채식품이 만든 '건강담은김치 3kg' 구매 쿠폰을 제공한다. 아울러 대우위니아는 2005년 9월 이전 모델을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상클린서비스'를 오는 12월31일까지 진행한다. 기계실 내부 청소 및 성능 점검 서비스는 대우위니아 공식 고객센터(1588-9588)로 신청하면 된다. /최환준기자 choihj@kjdaily.com

## 아시아나항공, 차입금 503억 추가 감축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9월말 차입금이 3조1천411억원으로, 전월 대비 503억원을 감축했고 단기차입금 비중은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년말과 대비해 약 1조원의 차입금을 감축한 실적이다. 4분기에는 차입금 상환 등을 위해 10월과 11월 중 총 4천200억원 규모의 4년 만기 장기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및 내년 운용리스 회계변경에 따른 자본 확충을 위해 11월 중에 2억달러 규모의 영구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연말까지 회사목표인 차입금을 2조원대로 낮추는 것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관범기자 coolguy@kjdaily.com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체 차입금 규모도 전월말 3조9천711억원에서 3조9천180억원으로 531억원을 추가로 감축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3분기에 중국 한한령 점진적 해소를 인한 중국노선 회복세 지속과 함께 미주 및 유럽 등 장거리노선을 중심으로 여객전반의 매출성장세 보이고 있다. 특히 유럽노선의 경우 올해 신규 취항한 베네치아, 바로셀로나 노선의 조기 안정화로 인해 총 7개의 유럽 노선의 평균예약률이 90% 수준의 높은 예약율을 유지하고 있다. /최관범기자 coolguy@kjdaily.com

목포벤처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제)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창렬)은 목포벤처지원센터 신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전남지역 IT·SW 개발 관련분야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모집 규모는 총 2개실(38.25㎡)이다. 월 임대료는 6만1천940원으로 전기와 가스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입주 시 3.3㎡당 10만원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고, 보증금은 퇴거 시 반환 가능하다. 입주기간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간이며, 이후 심사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 시 연장 계약도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15일 마감되며,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류와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입주기업을 선별한다. /김종민기자 kim777@kjdaily.com

### 하이트진로 '강다니엘 스페셜 캔' 출시

하이트진로는 '하이트 엑스트라폴드' 브랜드 모델 강다니엘의 사진이 담긴 스페셜 캔을 제작해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스페셜 캔은 그를 워너원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는 강다니엘의 하이트 엑스트라폴드 모델 활동을 기념하고자 특별히 제작하게 됐다"며 "캔 중앙 전면에 강다니엘 이미지를 적용했다"고 소개했다. 강다니엘 스페셜 캔은 하이트 엑스트라폴드 355ml로 제작됐다.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살 수 있다. /최관범기자 coolguy@kjdaily.com

## 덕남동 임야, 싸게 팝니다. 금매합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20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3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이전비용 매도자부담)

문의. 010-3605-5000